

강진서 무료 캠핑하며 맥주축제 즐겨요

29~31일 종합운동장서 하맥축제
 무료 캠핑장 3일간 90팀 모집
 노라조·윤도현밴드 등 공연도

“1만원에 맥주 무제한, 무료캠핑까지.”
 강진 하맥축제가 29일부터 31일까지 전남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단돈 1만원의 입장료에 맥주 무제한, 화려한 라인업의 공연에 무료 캠핑까지 더해지며, 선착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를 테마로 한 축제이니만큼 음주 후 귀가가 어려운 관광객을 위해 종합운동장 풋살장 옆에서 무료 캠핑장을 운영하며, 1박당 30팀, 축제기간 3일간 9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네이버폼(naver.me/FCAYz2uK)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강진군 SNS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캠핑존 이용도 무료에다가 캠핑 장비도 무료로 대여한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텐트, 테이블, 캠핑의자, 랜턴, 침낭 등 캠핑 장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안전사고 대비 및 운동장 시설 보존을 위

해 전기 및 취사는 금지된다. 축제가 끝나고 늦은 시간 관광객이 휴식을 취하고 취침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교통대책으로 45인승 무료셔틀버스를 4대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강진터미널을 시작으로 강진군청을 경유하여 축제장으로 운행하며 3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운행해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하맥축제는 29일 QWER, 노라조, 30일 에일리, 뉴진스(개그맨 윤정호), 31일 윤도현밴드가 출연하며, 종합운동장 야외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이 지난 16일 화순중앙로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정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김대희 화순중앙로 상인회 사무국장, 권이현 화순중앙로 상인회장, 구복규 화순군수, 김동혁 화순중앙로 상인회 부회장. (화순군 제공)

화순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

화순중앙로 상점가 지정

화순군이 화순중앙로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정부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지정을 통해 화순중앙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치고 9월 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홍보 행사를 개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장경쟁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이번 제1호 지정에 이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발굴해 지역 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침체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인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제1회 하맥축제에 외국인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몰렸다. (강진군 제공)

함평군, 도로 안전·농기계 임대 빅데이터 활용

행안부 데이터 행정 2개 사업 선정

함평군이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한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및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도로시설물 안전 위험 요소 탐지와 농기계 임대 두레 서비스로,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한다.
 'AI 기반 도로시설물 안전 위험 요소 탐지' 사업은 관용차에 포트를 탐지 프로그램을 탑재해 도로의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AI가 학습한 포트를 이미지를

기반으로, 주민 신고나 도로 순찰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보다 빠르게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또 '농기계 임대 두레 서비스'는 군과 농협이 보유한 농기계 데이터를 활용해 농민들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현재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8월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1만8000원으로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OK”

25일까지 초·중학생 525명 모집

나주시가 지역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규모 수강생을 모집한다.
 나주시는 19일부터 25일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화상영어 교육에 참여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화상영어는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하며 각

각 52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기수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25명, 일반학생 500명이 해당된다.
 1기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나주시 화상영어 홈페이지(www.najuenglish.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시간은 주 2회(화·목) 회당 45분 또는 주 3회(월·수·금) 회당 30분으로 1주일에 90분간 진행한다. 수업 시간은 오후 2~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수별 1인당 수강료는 7만2000원이나 일반학생은 자부담 1만8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5만4000원과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수강료 전액은 나주시가 지원한다.
 각 가정에서는 원활한 화상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컴퓨터(화상카메라 및 헤드셋 필수), 모바일기기, 노트북과 같은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화상영어 프로그램이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명품교육도시 나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의 인기 관광지 할인받고 구경하자

'1+1 블루투어' 특별 행사

담양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기 체험 상품을 5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특별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담양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도의 정책으로 전남관광플

랫폼(JN TOUR)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행사 개시와 함께 죽녹원과 메타프로방스를 비롯해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체험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죽녹원의 대나무 숲 산책과 메타세쿼이아랜드 주변 프로방스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반값에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